



최근 뮤지컬 카르멘에서 관능적인 매력을 발산했던 배우 차지연이 서편제의 '눈먼 소리꾼' 송화로 돌아왔다. 초연 때부터 함께 해온 이자람의 송화가 '소리'에 방점을 찍었다면 차지연의 송화는 '한' 자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오벨컴퍼니

“힘들었던 삶의 기억 내 무대를 만드는 힘”

양형모의 **아이 러브 스테이지**

| 세번째 서편제 '송화' 차지연

뮤지컬 카르멘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관능적이고 뇌쇄적인 매력을 여과 없이 드러냈던 배우 차지연이 서편제로 돌아온다. 남자라면 누구든 빠져나올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집시여인에게서 눈먼 소리꾼으로의 '점프'는 사하라사막과 남극만큼이나 거리가 멀어 보인다.

차지연은 서편제에서 주인공 송화 역할을 맡았다. 2010년 초연 때 처음 송화를 맡았고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다. 소리에 한이 맺힌 아버지 유봉의 손에 의해 눈이 멀게 되는 비운의 소리꾼이다. 2년마다 어김없이 송화의 환웃을 입고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의 한을 혈관 가득 채우는 차지연을 만났다.

- 세 번째 서편제다. “또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땠나.

“집이 났다. 지난 시즌에 너무 진이 빠지고 힘들었다. 두 번 다시 안 하겠다고 했다. 그래도 인연은 어쩔 수 없나 보다.”

- ‘송화’라는 인물에 대해 더 보여줄 것이 남아 있나.

“이번에는 많이 성숙된 송화였으면 좋겠다. 물론 눈물이 날 것이다. 밖도 밖이지만 안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초연을 한 지 4년이나 흘렀다. 그 동안 인간 차지연으로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았다. 내가 산만큼 송화로 살았다. 전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무대에 우두커니 서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다.”

- 노래를 잘 하는 뮤지컬 배우는 많다. 하지만 ‘감정의 호소력’은 차지연이 제일이라는 말이 있다.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지만 나의 삶은 힘들고 어두웠다. 장장 30년이다. 보지 않

아도 될 것을 보고,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을 느끼며 살았다. 당시는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지금은 힘이 되고 있다.”

- 노래를 부르거나 연기를 할 때 삶의 경험이 ‘호소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작품을 할 때마다 내가 겪은 일들과 비슷한 순간이 너무도 많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너무나 아픈 기억들이지만 역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살아나게 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공연을 하면서 스스로 치유가 된다는 점이다.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공연 때마다 느낀다.”

- 최근 아이다, 잃어버린 얼굴 1895(명성황후역), 카르멘에 출연했다. 서편제도 송화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여성 캐릭터가 극을 이끌어가는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작품을 특별히 선호하는가.

“일부러 고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극에서 극으로 확확 가는 게 재밌다. ‘나에게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 ‘차지연이 저런 것도 할 줄 아네’하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한 두 분만 계시도 내게는 큰 소득이다.”

- 우리나라 배우들의 해외진출이 불이다. ‘차지연은 해외에서 무조건 통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큰 체격 때문이 아닐까(웃음). 현재는 계획이 없다.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잘 다지고 싶다. 다만 서편제가 일본에 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소리’로 우리의 감성을 외국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창작 뮤지컬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도전해 보고 싶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호텔·테마파크서 ‘특별한 화이트데이’ 즐기세요

TOUR & INFO

봄이 성큼 다가왔다. 봄을 맞아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올 봄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로맨틱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국내 주요 호텔과 테마파크들은 화이트데이(3월14일)를 맞아 다양한 패키지 상품과 이벤트를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호텔에서 로맨틱한 추억 만들기

엠블호텔 킨텍스는 14일까지 러브홀릭 패키지를 판매한다. 14일과 15일 단 이틀만 즐길 수 있는 한정상품. 객실 1박과 디너 2인, 프리미엄 마카롱 1박스, 꽃다발 등이 포함돼 있다. 요금은 슈퍼리어 기준 14일 33만6600원, 15일 38만5000원이다. 제주도 해비치 호텔&리조트는

8일부터 16일까지 로맨틱 화이트데이 패키지를 선보인다. 오션뷰 객실이 풍선과 스페셜 린넨으로 꾸며진다. 커플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 이용권 등도 제공한다. 가격은 33만원(세금 및 봉사료 불포함).

●특별한 프로젝트를 해보자

로맨틱한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사전에 패키지를 구매한 2팀에 한해 메인수조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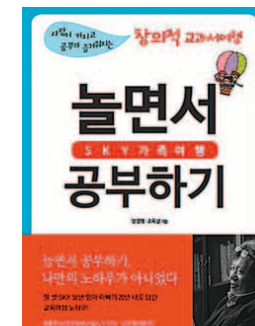
화려한 영상을 보여주고 다이버가 물 속에서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펼쳐준다. 패키지는 10일부터 구매가능하다. 에버랜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초청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에버랜드 SNS이벤트를 펼친다. 댓글이나 팬션을 통해 화이트데이에 함께 하고 싶은 연인의 이름 또는 아이디어를 걸고 초대해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김영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BOOK CAFE

SKY 가족여행 하면서 공부하기

20년간 네자녀와 함께 한 교육여행서
‘답사기의 지존’ 유홍준 교수도 극찬



“내가 답사를 다니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냐 노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한다. 대답하자면 나는 놀면서 공부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 그게 나만의 노하우가 아니었다. 딸 셋, 아들 하나를 둔 엄마 아빠가 초등등 교과서를 상세히 탐구해 전국을 누비며 발품을 판 20년 내공이 담긴 ‘교육 문화 감상 답사기’였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인 유홍준 교수의 평이다.

도대체 어떤 책이기에 ‘답사기의 지존’이 엄지손가락을 올린 걸까. 책 제목부터 소개하면 ‘SKY 가족여행 하면서 공부하기’(양영재·조옥남 지음 1 뎡모지교 펴냄)다. 일종의 교육여행서다. 지은이는 요즘 보기 드문 네 자녀를 둔 50대의 엄마 아빠다. 딸 셋도 모자라 늦둥이 아들까지 두었다. 그 어렵다는 자식농사를 참 잘 지었다. 서울대를 나온 큰 딸은 아빠의 뒤를 이어 신문기자로 일하고 있고 둘째 딸은 과학고를 졸업하고 연세대에 조기입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셋째 딸은 고려대에 재학 중이다. 딸 셋을 이른바 ‘SKY’에 거론히 보냈다. 그 비결은 엄마 아빠의 꾸준한 독서지도와 가족여행이란다. 첫째가 유치원 다닐 때 가족여행을 시작, 꼬박 20년 동안 전국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삶과 문화현장을 찾아다녔단다. 이것이 딸 셋을 SKY에 보낸 최고의 비법이란다.

이 책에는 네 자녀와 함께한 교육여행 20년의 노하우가 담겨 있다. 교과서를 분석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중요 여행지(양주 송암천문대 등 8곳)를 주제별로 가려낸 뒤 교과 내용과 배경지식에 교양, 상식, 창의력, 사고력에 가족사랑을 고루 버무려 맛있게 요리했다.

‘SKY 가족여행’은 여행기가 거기서 거기지는 생각을 싹 씻어주는 독특한 여행기다. 여는 여행기와는 달리 ‘SKY 가족여행’만이 갖는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 첫째는 학습능력을 키워주는 초중 교과서 여행기이다. 말하자면 놀면서 공부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해하기 쉽도록 대화식으로 엮었다. 소소한 일상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묻고 답하고 나누는 스토리텔링이 뛰어나다. 그만큼 쉽고 편안하게 읽힌다. 여행 분위기를 띄워주는 유머와 브레인스토밍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다. 가족여행 길에 나섰던 유머와 난센스 퀴즈 등을 본문과 ‘취거나 웃거나’코너에 엮었다. 또 주 여행지가 아니더라도 같은 주제로 나눌 수 있는 ‘전국의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해 여행지 선택 폭을 넓혔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 선생님은 물론 학부모들의 평가가 좋다. “행복 만족, 감성 충전, 지식 충족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아이 꿈찾기 프로젝트’라는 평부터 “내용과 편집, 구성을 보고 감탄했다. 특별히 교과서 연계단원을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넣어 ‘교육여행’이라는 콘셉트로 많은 부모의 사랑을 받을 것 같다”고 감탄하기도 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작년 봄 가정의 주춧돌이었던 엄마가 훌쩍 자녀 곁을 떠났단다. 엄마는 5년여의 암투병 중에도 용감하게 자식들과 전국을 여행했다고 하니 가슴이 찡해진다. 대화형 형식으로 쓴 책 속에 엄마의 웃음이 더 애잔하게 들리는 듯 하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2014년
신제품

음경 아래가 축축하고 고개숙인 남자들이 찾는 속옷!
벌떡(핫나경) 팬티!
국내에서 개발한 기능성 원단으로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품입니다.

고기능성
퀵 템
에너지 섬유

벌떡팬티(기능성 신소재 원단)를 구입시 옥+자석링 4개를 무료 증정

고기능성 퀵 템 에너지 섬유

32.5℃

옥+자석링

음경바로 교환바로 옥+자석링은 벌떡팬티에 부착되어있습니다!
옥, 삼베, 바이오 세라믹의 조화로움 만남!
음경과 고환이 따로 분리되어 습하고 찜이 차는 것을 막아 주고 땀냄새 제거 등에 탁월한 도움을 주며 더 크고 더 단단하고 더 오랜시간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 속옷으로 고개숙인 남성들도 10대의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리점 모집중!
해외 바이어 상담환영

벌떡팬티 한셋트(3매) 구매시(사은품:벌떡팬티 1매와 옥+자석링 4개)

제품문의 : 1588-4101 / 010-7102-7070 / 010-8968-5877

2014년
신제품

따뜻한 내 아내!
옹녀 핫나경!!
실물과 같은 여인!

밤이 외로운 남자를 위해!
내 여인을 만나면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1위

차별화 된
1위 제품!

2014년 최신 제품
동남아에 수출하기 위한 제품이며
폴리우레탄 재질로 무독성이고
견고하며 촉감부터 다릅니다.

원양선원, 독신자, 장애인, 출장자, 해외근로자
외로운 남성들에게 대환영 받고 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여인...
써 본 분만 아는 여인!

무독성!
국내유일의 신소재로
절대터지지 않습니다.

구입시 사은품 증정
대리점 모집중!
해외 바이어 상담환영

파격적인 가격! 내 여인 인형!
공정적임으로 국내산이 아닐경우에는 100% 배상합니다.

제품문의 : 1577-4101 / 010-8952-4114 / 010-6380-5877

제원실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오소**
19
마성년지
구독불가

인생을 두배로 즐겁게!
날 밤 새는 줄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①오피스텔 와이프

②백인백색의 낙원

③명기와 명도 전쟁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보
①오피스텔 와이프 ②백인백색의 낙원 ③명기와 명도 전쟁
(주)글로벌 핫 출판사 / 저자 전준성(필명) 저 / 각권 15,000원(3권 45,000원)
*사은품으로①권을 더 선불에 드립니다.

1. 여자의 제일 좋은 운은 여러번의 절정을 몰아다주는 남자를 만나는 운이 제일 좋은 운이다.
2. 명기로 가는 길, 명도로 가는 길, 자금 오름길을 아시나요
3. 생코피 터지는 밤의 대통령도 사랑의 기술을 알아야 잘할 수 있다.
4. 여자는 남자하기엔 따라 요조숙녀처럼 자네기도 하고 화냥기로 변할수도 있다.
5. 여자들의 질투로 한을 품으면 오늘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저공전쟁으로 이어진다. (본문중에서)

제품문의 : 070-7809-5151 / 010-7102-7070